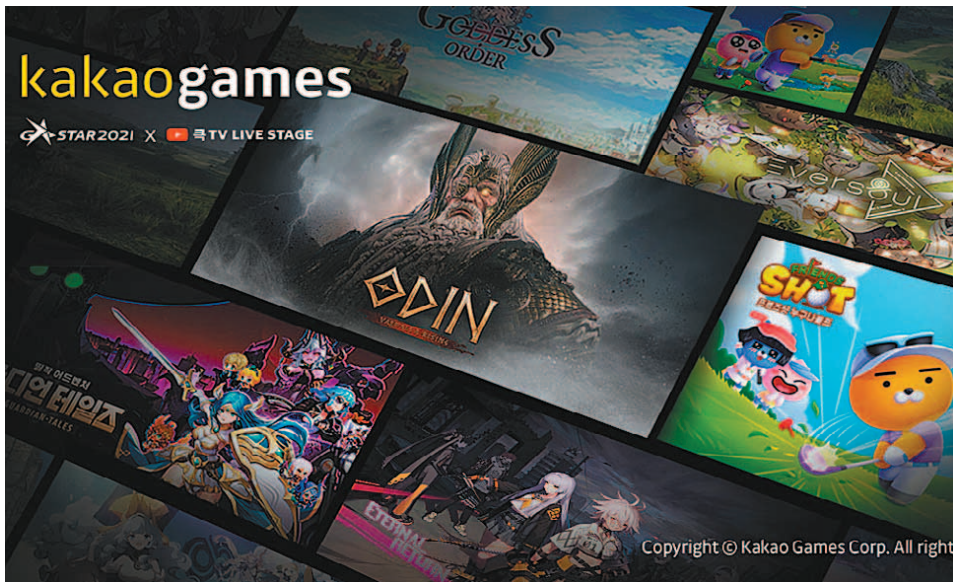




게이머들의 축제 ‘지스타’가 2년 만에 오프라인 전시로 돌아온다. 메인스폰서로 참여하는 카카오게임즈가 선보이는 7종의 게임, 크래프톤이 출품하는 모바일 신작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사진제공 | 카카오게임즈·크래프톤

오딘·뉴스테이트…오프라인으로 돌아온 지스타

(배틀그라운드)

18일부터 일반 관람 ‘퍼블릭데이’ 카카오, 신작 포함 7종 게임 선보여 크래프톤 신작 ‘뉴스테이트’ 인기 전시·체험존부터 랜선응원전 운영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가 오프라인 전시로 돌아온다. ‘지스타 2021’은 17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다. 17일은 초청자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미디어 데이’, 18일부터 21일까지는 온라인 사전 예매를 한 일반 관람객 대상 ‘퍼블릭 데이’를 진행한다.

올해 행사에는 카카오게임즈와 크래프톤, 시프트업, 그라비티 등이 참가해 신작 게임을 선보인다. 특히 ‘3N’에 이어 새롭게 떠오르는 ‘2K’, 크래프톤과 카카오게임즈의 출품작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오프라인 전시를 재개하고 팬들과 호흡한다는 의미를 담은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Here comes the game again)’이다.

●참여사 출품작 체험

이번 행사 메인스폰서로 참여하는 카오게임즈는 총 7종의 게임을 출품한

다. 각 게임별 특징을 담아 ‘브랜딩 존’과 ‘플레이 체험 존’을 운영한다. 브랜딩 존에서는 모바일 신작을 포함해 4종의 게임을 선보인다. 기대 신작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를 비롯해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가디스 오더’, 수집형 RPG ‘에버소울’, 모바일 RPG ‘가디언 테일즈’를 만나볼 수 있다.

플레이 체험 존에서는 대작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MMORPG) ‘오딘: 발할라 라이징’과 스포츠 캐주얼 모바일 ‘프렌즈샷: 누구나골프’, PC온라인 생존 배틀아레나 ‘이터널 리턴’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영문 이니셜 ‘KG’를 딴 새로운 커뮤니티 채널 ‘큅TV’를 운영한다. 행사 기간 총 20여 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카카오게임즈는 LG전자와의 제휴도 진행한다. 이용자들은 전시관에서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와 ‘울트라기어 스피커’를 통해 게임을 체험하고, 현장 이벤트를 통해 최신 울트라기어 게이밍 스피커 ‘GP9’도 받을 수 있다.

크래프톤은 이번 지스타에서 11일 출시한 모바일 신작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출품한다. 뉴스테이트는 배틀로얄 장르를 개척한 펍지 스튜디오가 직

접 개발한 게임으로, ‘펍지: 배틀그라운드’의 게임성과 세계관을 계승했다.

독자적 콘텐츠와 차별화된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배틀로얄 게임이다. 전 세계 200여 개국에 출시된 이 게임은 4일 만에 2000만 다운로드를 넘었고, 165개국에서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했다.

크래프톤은 전시관 디자인과 구성을 뉴스테이트만의 독창적 미래 세계관과 아이덴티티로 꾸몄다. 게임 체험존은 물론 ‘뉴배 MBTI존’, ‘이모트 댄스 챌린지존’, ‘포토존’, ‘굿즈숍’ 등을 운영한다. ‘펍지 글로벌 챔피언십 2021’에 출전하는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는 랜선 응원전도 펼칠 계획이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이번 지스타 참가를 통해 한국 게임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에 국내 선도 게임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 밖에 참가사들도 다양한 신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프트업은 ‘니케:승리의 여신’을 메인 타이틀로 선보인다. 게임 체험존을 운영하고, 게임 세계관을 담은 포토존도 꾸민다. 지난 9월 공개돼 관심을 모은 ‘프로젝트:이브’의 트레일러 영상도 현장에서 감상할 수 있다. 그라비티도 대표 지적재산권(IP) ‘라그나로크’를 활용한 타이틀 등을 출품한다.

●컨퍼런스도 오프라인 개최

지스타에선 다양한 부대행사를 즐길 수 있다. 지스타 컨퍼런스는 18일부터 19일까지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오프라인으로 열린다. 총 3개 트랙, 38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1일차 키노트 연설에는 시프트업의 김형태 대표, 2일차에는 SKT에서 메타버스를 총괄하는 전진수 CO장의 강연이 진행된다. 현재 게임 산업의 최대 이슈인 메타버스 관련 주제 외에도 독창적이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는 인디게임 개발사의 강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참관객 입장 수가 제한되는 특수상황을 고려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스타 특별 무대와 방송도 진행한다. 아프리카 TV와 트위치TV에서 운영하는 ‘지스타 TV’를 통해 온라인 방송된다. 현장의 생생한 모습과 함께 참가사들의 참여 방송으로 구성된 5일 동안 운영한다. 코스프레 어워즈를 비롯해 다양한 이벤트 역시 해당 특별 무대에서 진행된다.

한편, 지스타조직위원회는 ‘위드 코로나’ 후 코로나19의 발생률 증가세가 뚜렷한 미성년자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성인과 미성년자 구분 없이 백신접종 완료 또는 PCR 음성 확인자만 참관을 허용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게임전문가 간담회 개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8일 게임 산업의 새로운 가치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재미가 시간을 만든다’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게임이라는 콘텐츠가 만드는 본질적인 가치인 고객의 시간 점유율에 주목하고 해당 주제와 관련해 패널들의 자유로운 대화로 진행할 예정이다. 게임 전시회 지스타 개최에 맞춰 부산 벡스코 현장에서 생중계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게임 서비스 확장 현황을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고 해당 현상에 대한 원인과 영향부터 실제 사용자의 편의, 게임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의 확장 가능성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이장주 이라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이 간담회 진행을 맡았으며 패널로는 게임, 콘텐츠, 디지털 산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안병도 카카오게임즈 실장, 장민지 경남대학교 교수,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장이 참여한다.



라이트콘, ROS 대표 이미지 공개

위메이드맥스의 자회사 라이트콘에서 개발하고 있는 신작 모바일게임 ‘라이즈 오브 스타즈’(ROS)가 대표 이미지(사진)를 공개했다. 라이즈 오브 스타즈는 공상과학(SF) 전략 시뮬레이션 장르로, 광활한 우주를 배경으로 세밀하게 구현된 전함, 행성 등이 특징이다.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대규모 전쟁을 통해 세력을 확장하는 재미가 있다.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ROS on WEMIX’라는 명칭으로 글로벌 서비스될 예정이며 새로운 게임 토큰과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을 위믹스 플랫폼 내에 선보일 계획이다. 게임은 내년 1분기 출시 목표 하고 있다.

‘슈퍼피플’ 내달 7일 글로벌 비공개 베타테스트

원더피플(대표 류제원)은 PC용 슈팅 게임 ‘슈퍼피플’의 글로벌 CBT(비공개 베타 테스트) 진행 날짜를 12월 7일로 확정하고 확장판 트레일러 영상을 16일 공개했다. 슈퍼피플은 ‘던전앤파이터’의 아버지 허민 대표가 설립한 원더피플이 최초로 선보이는 PC 기반의 배틀로얄 슈팅 게임. 다양한 특성과 특화 스킬을 가진 12종의 슈퍼 솔저 중 한 명을 플레이하는 방식으로 슈퍼 솔저를 성장시키면 얻을 수 있는 궁극기를 통해 기존 배틀로얄 슈팅 게임과는 다른 새로운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펠어비스, 신작 ‘도깨비’ 적용된 차세대 엔진 공개

‘지스타2021’ 게임 컨퍼런스서 발표

펠어비스가 ‘지스타 2021’에서 열리는 게임 컨퍼런스에 참여해 ‘차세대 엔진 개발 포스트모템’을 주제로 19일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발표한다. 발표는 고광현 펠어

비스 리드 엔진 프로그래머가 맡았다. 펠어비스 차세대 게임 엔진에 사용되는 다양한 기술과 ‘펠어비스가 어떤 목표를 갖고 게임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지’, ‘차세대 게임 엔진에 주력할 부분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펠어비스가 개발 중인 신작 ‘붉은사막’과 ‘도깨비’(사진), ‘플랜 8’에 적용된 엔진의 광원, 대기, 기하, 물리 처리 기술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공개한다. 펠어비스는 자체 게임엔진을 개발하는 등 게임 기술적인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신작과 병행해 개발 중인 차세대 게임 엔진은 최고 수준의 그래픽과 멀티 플랫폼 지원 등 최신 기술을 갖추고 있다. 김명근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1월 17일 (수) 음력: 10월 13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청색 길방:동	 소	행운색:적색 길방:남	 호랑이	행운색:검정 길방:북	 토끼	행운색:적색 길방:남
 용	행운색:적색 길방:남	 뱀	행운색:청색 길방:동	 말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양	행운색:적색 길방:남
 원숭이	행운색:검정 길방:북	 닭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개	행운색:흰색 길방:서	 돼지	행운색:흰색 길방:서
심사숙고해서 경거망동을 삼가야 할 시기이다. 경솔히 나아가면 산에 산이 겹쳐하는 난관에 부딪친다. 정치해야 할 때는 정치해야 한다. 태연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차분히 노력해서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뽕날이다.		음과 양의 기운이 통하는 운기이다. 이성을 만나면 길한 날이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첫 인상에서 좋게 느껴진 것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애정 운이 최고인 날이다. 소가 뱀을 만나는 날이다.		고귀하면 고귀할수록 비천함에 봉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뛰어난 재능, 이름다운 용모는 겸허함으로써 더욱 빛나는 것이다. 매사에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되며, 지금은 재능을 감추두고 조용히 기회를 기다려야한다.		물이 차지 않으면 배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시기가 올 때 까지 차분하게 기다려야 할 때다. 협력해 주는 사람을 기대할 수 없으니 홀로 자기 길을 가야 할 각오가 필요하다. 두 곳의 사업장이면 한 곳으로 합하면 좋겠다. 오늘은 역마의 날이다.	
하늘과 땅의 조화가 되지 않는 날이다. 벽찬 일로 고역을 치른다. 그렇다고 일을 포기할 수는 없다. 격류를 건너 내려면 용맹심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이때에는 중요한 문제에 치중하여 일의 부담을 더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오늘은 겹살일이다.		오늘의 행상은 저녁놀이 산전 초목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몰락 직전의 찬란한 빛을 암시한다. 금전적으로 충분치 못한데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겉소하라. 오늘은 지살일이다.		오늘의 기운은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고 인간으로는 장년기, 사업으로는 전성기를 나타낸다. 물론 뻗어가는 기운이지만 그만큼 책임은 무겁고 긴장이 끊이지 않는다. 사물은 성하면 쇠하는 법. 지나친 연동은 삼가고 항상 신중 하라.		옛날 나라에서 제왕을 올려야 했던 날이다. 즉, 현재의 변영이 하늘이나 조상의 덕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것을 경계하는 의미이다. 사업인에게는 이익이, 직장인에게는 승진이 있는 날이다.	
뜻을 달고 배가 물위를 가는 기운으로서 박을 향해 큰 기운을 발산하고 대사업을 이룩해 가는 시기이다. 이제까지의 불운을 만회하고 격정이나 번민에서 해방되는 때이다. 하지만 너무 태만하다보면 모처럼의 행운도 놓치게 된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주위의 인정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을 잃으면 고통을 맛보기 쉬울 때이다. 과감성을 갖고 행동에 임하면 명예는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다.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오늘은 역마의 날이다.		계절적으로는 춘분에 해당하며 얼음이 풀리고 만물이 일제히 싹을 틔운다. 그리고 지금까지 괴롭고 어려웠던 문제도 해결되고 새로운 출발의 시기가 온 것이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재빨리 호기를 붙잡아야 한다. 오늘은 겹살일이다.		봄사를 해야 하는 운기의 날이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버리고 먼 미래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질적으로는 손해지만 그 행위로써 상대를 기쁘게 하고 남에게 덕을 입히는 것으로 나중에는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 오늘은 역마일이다.	

오늘의 날씨				17일(수)			
서울	0/20	인천	0/20	춘천	0/20		
	2 13		4 12		-1 12		
강릉	0/0	대전	0/20	전주	0/20		
	5 16		2 14		3 14		
광주	0/20	대구	0/20	부산	0/20		
	4 15		3 15		7 17		
창원	0/20	제주	0/2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5 16		10 17	날씨	최저 최고기온 °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704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송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영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충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